

미래에셋대우, 첫 종합대상 ... 주식·채권·IPO서 전방위 활약

총 1조2760억원 주식 발행 주관 명신산업 등 18개사 상장 성공

지난해 투자은행(IB) 가운데 가장 성과가 높은 곳을 가리는 한국IB대상 제12회 종합대상 자리에 미래에셋대우가 올랐다. 미래에셋대우는 21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한 '제12회 한국IB대상'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연초부터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의 부침이 유난히 컸다. 어려운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 탓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저공리와 자산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자금 마련 수요가 커졌다. 시상식은 22일 오후 3시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다.

◆교촌F&B 등 18곳 상장 주관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매체 마케팅사이



제12회 한국IB대상에서 종합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미래에셋대우의 김상태 IB총괄사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과 IB부문 임직원들이 미래에셋 센터홀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트거 집계한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에셋대우는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을 포함해 총 1조2760억원어치 주식을 발행하는 작업을 주관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증권사 가운데 가장 IPO를 많이 주관해 기업의 증시 입성을 도왔다.

이 회사가 작년 상장 성공시킨 기업은 모두 18곳이다. 테슬라의 부품사로 주목받고 있는 명신산업, 해외 모바일 게임사인 미투젠, 게이밍 기어 제조업체인 엠코 등 특색 있는 기업을 많이 상장시켰다. 이 가운데 명신산업은 유가증권시장

기준 역대 최고 수요예측 경쟁률(11%대)과 역대 최고 일반 청약 경쟁률(1372대 1)을 기록했다. 차진 프랜차이즈업체인 교촌에프앤비의 상장은 특히 '프랜차이즈 1호' IPO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미래에셋대우의 주식

제12회 한국IB대상 수상 회사

종합대상	미래에셋대우
주식발행	한국투자증권
채권발행	KB증권
IPO	NH투자증권
M&A 재무자문	크레디트스위스증권
M&A 법률자문	김앤장
M&A 회계실사	삼일PwC
인수금융	삼성증권
대체투자	하나금융투자
베스트딜	씨티글로벌마켓증권, BDA파트너스
이노베이션하우스	키움증권

발행(IPO 포함) 주관 수수료 수입만 434억원(수수료 점유율 14.07%)에 달했다. 특히 IPO 주관 실적도 좋아 IPO 수수료 점유율은 20.42%를 기록했다. 김상태 미래에셋대우 사장(IB총괄)은 "다른 IB보다 조직이 젊어 향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 기업을 발굴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ESG 채권 발행 도와
최근 기업의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미래에셋대우의 역량이 빛을 발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11월 2000억원 규모로 ESG 채권을 발행하는 일을 대표주관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1047억원(잠정치)으로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1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지난해 매출은 16조8905억원으로 전년(15조4369억원)보다 9.42% 늘었고 순이익(8183억원)은 23.19% 증가했다. 장병식 심사위원장(승실대 총장)은 "라임 자산운용 및 유펜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판매로 인한 문제에서도 미래에셋대우는 한 발짝 비켜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지켰다"며 "가치를 산정하기 쉽지 않은 프랜차이즈 IPO 등에 적극 나서서 등 리스크를 감수하고 적극적인 IB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두산중·대한항공 등 유상증자

주식발행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주식발행(ECM) 분야에서 1위에 올랐다. 2017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유상증자 실적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평가 항목인 대표주관 금액과 인수금액, 수수료, 모집주관 금액 등 전 분야에서 1위 최고점을 받았다. 2조7426억원어치의 주식 공모를 대표주관하면서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2020년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위축됐으나 하반기부터 호황을 보였다. 주식시장을 떠돌던 막대한 유동성이 주식 발행시장으로 흘러들면서 하반기는 주식 발행의 황금기로 평가됐다.

연예인 기자 ace@hankyung.com

작년 24兆 발행 ... 8년 연속 1위

채권발행
KB증권

KB증권은 8년 연속 채권발행시장(DCM) 1위에 오르며 이 분야에서 장기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증권사는 지난해 총 584건, 24조742억원어치 채권(은행채 특수채 제외) 발행을 대표로 주관해 DCM 1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주관 금액을 12.7% 더 늘렸고, 시장 점유율도 20.80%에서 21.12%로 높였다.

KB증권은 일반 회사채, 여신전문금융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분야에서 모두 선두권에 오르며 고르게 실적을 쌓았다. 특히 일반 회사채시장에서 초대형 거래에 잇달아 참여해 존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美 빌딩·호주 에너지 인프라 투자

대체투자
하나금융투자 Hana Financial Investment

지난해 미국 시애틀 퀴트릭스타워 등을 인수한 하나금융투자가 대체투자 분야 최우수 투자은행(IB)으로 선정됐다.

하나금융투자의 퀴트릭스타워 인수는 미국 현지에서도 '올해의 오피스 빌딩 거래'로 불리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애틀 도심에 자리 잡은 지상 38층 최신식 빌딩의 자본 총액 95%를 인수했다. 전체 사무 공간의 100% 면적이 임차 중이며 평균 잔여 임차 기간이 12년가량 남은 우량 자산이라는 분석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맞춘 투자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장 환경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도 강화했다. 호주 퀸즐랜드 주 쿨람볼라에서는 162M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개발했다. 토지 매입 단계까지만 진행된 사업을 인수해 개발을 끝마쳤다. 국내 증권사기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의 실무를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까지 현지에서 조달한 첫 사례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뤄진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사업에는 167억 달러(약 1847억원) 규모 PF 대출을 조달했다. 선순위 대출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셀다운(자본 재매각)을 마쳤으며 후순위 대출 투자에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했다. 홍선기 기자 rickey@hankyung.com

빅히트·SK바이오팜 상장 주관

IPO
NH투자증권

작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SK바이오팜 등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이 기업공개(IPO) 분야 최우수 투자은행(IB)으로 선정됐다. 공모 기업과 투자자 양쪽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IPO 시장에서 '최고가보다 최저가'를 제시하는 균형 감각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NH투자증권은 모처럼 공모 1조원대 IPO 대역이 시장에 나왔던 지난해 이들을 모두 대표주관하는 저력을 보였다. 공모 금액 9626억원의 빅히트, 9593

연예인 기자 ace@hankyung.com

맥쿼리 PE 모든 거래 주선

인수금융
삼성증권 SAMSUNG

삼성증권은 지난해 주요(조) 단위 거래의 인수금융 및 리파이낸싱 주선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인수금융부문 최우수 증권사로 평가받았다. 대성산업 가스, LG CNS 지분 인수, HK이노엔 등 거래가 대표적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2조575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거래를 주선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2조원을 넘겼다. 총 4건의 인수금융과 7건의 리파이낸싱 거래를 주선했다. 사모펀드(PF) 및 주요 기업 등 여러 투자

김재현 기자 why29@hankyung.com

대기업 자금 조달 맡으며 존재감

이노베이션 하우스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지난해 대형 증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자기자본 2조3488억원(지난해 9월 말 기준)의 증권 증권사지만 매년 꾸준히 고객 네트워크를 넓혀며 인지도를 쌓은 결과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채권발행시장(DCM)에서 9위를 기록했다. 주식발행시장(EMC)에서도 6위에 올랐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증권사를 제외하면 기업금융 영역에서 가장 고른 실적을 기록한 증권사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과거 미진했던 대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아시아나·인텔 낸드·보스톤다이내믹스 등 대형 M&A서 두각

CREDIT SUISSE
인수합병(M&A) 재무자문부문 대상은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에 돌아왔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해 완료된 거래를 기준으로 12조5759억원,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발표한 거래를 기준으로 17조1494억원 규모의 거래를 자문해 삼일PwC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가장 눈에 띈 딜 가운데 하나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한 거래(2조6000억원)였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이 거래를 위해 2019년부터 산업은행 측을 도와 아시아나항공을 공개 매물로 내놓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인수 희망자가 거래를 철회하는 등 한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끝까지 노력한 결과 국내 대표 국책 항공사간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KIM & CHANG
인수합병(M&A) 법률자문부문 대상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돌아왔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발표한 거래를 기준으로 30조2228억원 규모의 거래를 자문에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역시 김앤장'이란 타이틀을 지켜냈다는 평가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거래 건수로도 62건을 성공시켜 다른 로펌의 두 배 이상 실적을 보였다. 국내 M&A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였던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 인수(10조3104억원)에서 김진오, 이경윤, 이영민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SK하이닉스 측의 법률 검토를 도왔다. 지난해 상반기 대형 거래였던 KB금융그룹의 프르덴셀생명 인수(2조2660억원)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2조6000억원),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로보틱스개발업체 보스톤다이내믹스 인수(9558억원) 등을 자문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pwc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해 인수합병(M&A) 회계실사자문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바이아웃·탈퇴 기준(관계자 연결 시점 기준으로 집계한 경영권 거래)으로 총 44건, 12조1191억원의 M&A 회계자문 실적을 올렸다. 주요 회계법인의 거래 건수와 금액이 모두 전년 대비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회계실사 부문 왕좌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의 갑작스런 이었던 보스톤다이내믹스 인수 자문(9558억원)을 도왔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2조6000억원), 두산그룹의 두산솔루션매각(6985억원)에서 회계실사 업무를 맡았다. 이외에도 삼일회계법인은 IMM PE의 한국콜마 인수(5120억원), IS동서와 E&F PE 컨소시엄의 친환경 폐기물업체 코애펜트 인수(5000억원) 등 중·대형 거래까지 골고루 자문 실적을 올렸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씨티·BDA, 1조 규모 EMC딜 성사

한국IB대상 심사위원들이 꼽은 지난해 인수합병(M&A) 분야 베스트 딜은 SK건설의 환경 플랫폼사 EMC홀딩스 인수다. 회사 차원의 사업구조 재편을 넘어 SK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본격적인 신호탄 역할을 했다.

인수자문사로 선정된 투자은행(IB) BDA파트너스는 SK 측을 도와 거래 구조 설계, 실사 등 인수 관련 업무를 전담했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은 매각 자문사로 어펠마켓피탈의 투자 회수에 조력했다. SK건설은 골드만삭스PIA 등 다섯 곳의 후보들과 최종 경쟁 끝에 1조5000억원을 써내며 거래를 따냈다. SK그룹이 강조해온 경제적 가치(EV)와 사회적 가치(SV)를 함께 창출해 낸 '랜드마크'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